

전봉관, 이원재, 김병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1. 서론: 정실주의로서의 문예지 혹은 문학권력

우리는 1994년에서 2014년까지 간행된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전체의 서지 정보를 조사했다. 21년 동안 이들 3대 계간지에서 저자가 명기된 시, 소설, 평론, 논문, 대담-칼럼은 총 11,037편이었다. 외국 국적의 작가나 학자를 제외하고 작품이 직접 소개되거나 평론의 대상으로 거론된 시인, 소설가, 비평가 수는 총 1,565명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성별, 나이, 등단년도, 출신대학-대학원, 학과 등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다.¹⁾ 우리는 양화된 출판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사적 문학 활동이 비문학적인 조건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조직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연구는 문학의 비문학적인 조건, 혹은 문학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사회학적 시각으로부터 문학권력의 문제를 접근한다.

소위 ‘문학권력 논쟁’은 2000년대 이후 논쟁다운 논쟁으로서는 유일하다 할 만큼, 전 문단적 차원의 관심을 모으며 뜨겁게 전개되었다.²⁾ 하지만 이 논쟁이 감정적 대응과 과도한 인신공격으로 뚜렷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난 것은 논쟁의 당사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³⁾ 10여 년이 지난 2015년,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재개된 문학권력 비판도 구체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 간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등 3대 계간지와 그 간행 출판사들은 여전히 문학권력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⁴⁾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은 비정상적 권력을 행사하는 출판사, 문예지, 문예지 편집위원들이 있고, 출판 자본과 결탁된 그 비정상적 권력 덕분에 실제 문학적 역량보다 과대평가된 일군의 작가들이 있으며, 그러한 ‘스타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만들기를 위해 문학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 곧 ‘문언유착’이 이용되어왔다고 비판한다.⁵⁾ 이러한 문학권력 비판론들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명제들을 전제하고 있다.

1) 문단 내에는 패거리를 이루어 문학 외적 힘을 행사하는 문예지, 출판사, 비평가들이 존재한다. 2) 출판사별로 자사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만 자사 문예지 평론이나 시평에서 높이 평가하고, 타사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타사에서 출간된 작품은 자사 문예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유력한 문예지, 출판사, 비평가들이 문학계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한다. 4) 소수 엘리트의 배타적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 5) 문학 장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문학에 조그마한 애정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창작과 비평』,

1) 양적자료수집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측(missing)’의 문제로부터 우리 자료도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여기 소개된 숫자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 결측이 나타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과정 소개 중에 상술할 것이다.
2) 논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문학권력 비판 측 핵심 논객 권성우의 비평 「논쟁의 혁신과 진전을 위한 제안」(『황해문화』, 2002 봄)에 잘 정리돼 있다.
3) 권성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비판을 원한다」, 『황해문화』, 2001 가을.
4) 권희철, 「노동자 속의 불안」, 『문학동네』, 2015 가을,
5) 강준만·권성우, 『문학권력』, 개마고원, 2001.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등 3대 계간지에 이러한 ‘혐의’를 지울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권력 논쟁이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 계간지가 선호하거나 밀어주는 작가가 상업주의나 정실주의 같은 비문학적 이유에서 선택되었는지, 해당 계간지의 문학적인 이상과 이념 같은 문학적인 이유에서 선택되었는지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문예지가 특정한 작가를 높이 평가하고 그 작가의 문학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그 자체를 비문학적 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일군의 비평가와 작가가 서로의 문학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근대문학은 1920년대 동인지에서 배태되었다. 『창조』와 『폐허』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라는 문학적 지향성 차이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서북 출신 문인과 서울 출신 문인의 경쟁 관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1970년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민족문학, 민중문학 대 미적 자율성, 문학주의라는 문학적 지향성 차이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서울대 영문과 교수 백낙청, 서울대 불문과 교수 김현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인적 네트워크로 설명되기도 한다.

한국 근대문학은 동인지, 문예지를 기반으로 문학적 이상과 이념을 공유하는 문인 네트워크로 성장해왔고,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특정한 동인지, 문예지가 특정한 문인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그것을 문학권력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구인회가 이상을, 카프가 임화를, 『창작과 비평』이 황석영을, 『문학과 지성』이 이청준을 호명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권력’과는 무관한,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문학 행위, 문학적 평가였다.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은 이념이 쇠퇴하고 상업주의가 대두된 1990년대 이후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등 3대 계간지는 문학적 이상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거대 출판사의 이윤 극대화과 편집위원의 문단 지배력 강화라는 문학 외적 이유에서 비정상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 결과 문학 작품의 질적 저하와 독자로부터의 고립과 외면이라는 한국문학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거대 출판사들의 상업주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거대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로 밀어붙 수 있는 소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대의 적자를 무릅쓰고 문예지를 간행한다. 출판 자본의 ‘파출부’로 전략한 비평가는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문예지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등단), 그들에게 작품 발표 지면(게재)과 단행본 출간 기회(출간)를 제공하며, 그들의 작품을 ‘주례사 비평’(호명)으로 밀어준다. 문학상 역시 ‘스타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만들기에 이용된다. 신경숙, 은희경 등은 복수의 거대 출판사로부터 이러한 ‘스타 만들기’의 시혜를 입은 대표적 작가라고 지목되곤 했다.

지금까지 문학권력 논쟁은 문학권력의 실체에 대한 공감대조차 이루지 못한 채 공허하게 진행돼 왔다. 그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1990년대 이후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3대 계간지와 출판사들이 실제로 어떤 작가들에게 지면과 출간을 허락하고, 비평을 통해 호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한계를 직접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문학동네』가 창간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3대 계간지에 어떠한 소설이 게재되었고, 비평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작가가 등단했으며, 해당 출판사를 통해 어떤 소설이 출간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네트워크-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 21년 동안 문예지를 매개로 한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2-1. 계간지 서지 정보 데이터 (1994~2014)

본 연구는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3대 계간지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를 기본 데이터로 삼았다. 데이터 분석 시기는 『문학동네』(1994년 겨울 창간)가 창간된 1994년부터 2014년까지다. 계간지 각호의 목차는 학술정보 서비스들 중 하나인 Dbpia(『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와 교보 스콜라(『문학동네』)에서 찾았다. Dbpia의 경우에는 간행물명에서 계간지 이름을 검색한 후 ‘인용하기’ 기능을 활용했다. ‘전체’ 선택을 한 후 ‘인용하기’에서 엑셀로 기사 목록을 내보내면, 기사의 저자와 제목, 연도, 호수 등이 적힌 엑셀 파일 목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의 기사 목록을 확보했다. 교보 스콜라의 경우에는 ‘발행기관’ 탭에서 ‘(주)문학동네’를 클릭,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문학동네』 기사 목록을 확인했다. 다운받은 서지 정보는 기사 제목과 연도, 발행 호수, 저자 등의 데이터만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 엑셀파일로 정리했다.

2-2. 인명 데이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계간지에 글을 게재했거나 문학 평론(시론, 서평, 논문 등)의 대상에 된 한국 문인의 인명 데이터를 모았다. 이렇게 수집된 1,565명의 인명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인명정보에는 출신 대학(학부)과 학과, 대학원과 대학원 학과,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 재직 대학과 학과, 또한 등단한 문예지(신문사 신춘문예, 신인상 포함)와 등단년도, 마지막으로 성별과 출생년도가 포함돼 있다. 만약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했거나, 편입학했다면 추가 열에 기입해 놓았다. 대학원 역시 석사와 박사 졸업 학교가 다르다면 추가 열에 기입했다. 또한 문인이 복수의 문예지에서 등단한 경력이 있다면, 추가로 등단지와 등단년도를 입력했다. 마지막으로 문인이 문예지 편집위원이라면 편집위원으로 있는 문예지를 입력했다. 이를테면 소설가 김영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된다.

이름	대학	학과	대학원	학과	재직 학교	재직 학과	편집 위원	성별	출생	등단지	등단년도
김영하	연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남	1968	리뷰	1995

인명 데이터에는 한 사람마다 고유 id(숫자)를 부여하여 동명이인이나 필명과 본명이 혼용된 경우에도 오류가 없도록 처리했다. 예를 들어 김명인 시인과 김명인 평론가의 경우 각자 다른 id를 부여하여 동명이인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원), 학과, 문예지(언론사)에도 고유한 id(숫자)를 부여하여 후에 통계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 소설가 김영하의 인명 데이터를 숫자 id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이름	대학	학과	대학원	학과	재직학교	재직학과	편집위원	성별	출생	등단지	등단년도
236	146	4	146	4				1	1968	37	1995

김영하의 이름에 붙은 숫자 id는 236이고 연세대는 146, 경영학과는 4번이다. 또한 남자이므로 성별 번호 1, 등단지 리뷰의 id는 37번으로 배정했다. 다만 김영하의 경우 교수로 재직하는 학교나 학과, 그리고 문예지 편집위원이 아니므로 공란으로 두었다. 이런 방식으로 고유 id를 붙이면 한국어 인식이 어려운 통계 소프트웨어⁶⁾에서도 숫자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작가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면, 그 사람의 인명 데이터는 서울대(114), 국어국문학과(23)로 구성된다.

학과나 문예지 id의 경우 같은 계열일 경우 같은 숫자 id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문학과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과이므로 같은 학과 번호인 23번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예창작과와 서사창작과, 정치학과와 정치외교학과 등 유사 학과들은 하나의 동일한 id를 부여했다. 또한 문예지의 경우에도 계간지 『창작과 비평』, 『창비 어린이』, 출판사 창비 등 같은 계열에 속한 다면 동일한 id를 부여하였다.

2-3. 인명 데이터 크롤링

지난 21년 간 3대 계간지에서 한 차례 이상 게재되거나 호명된 문인 1,565명에 대한 인적 정보가 완벽히 정리된 자료는 그 어떤 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협회에서도 회원들의 인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지 않은 실정이었으며, 불완전하나마 보유하고 있는 자료마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했다. 따라서 우리는 문인들의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 크롤링이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공개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없을 경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선별하여 자동으로 수집하는 일을 뜻한다. 데이터 크롤링의 대상이 된 기본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창작과 비평: changbi.com/authors

문학과 사회: moonji.com/bookauth

민음사: minumsa.com/bookauth

교보문고: kyobobook.co.kr/author/info/AuthorMainNew.laf

네이버 인명 검색: people.search.naver.com

위 다섯 가지 사이트에서 각각 작가 이름을 통해 대학, 대학원, 학과, 재직 학교, 등단년도, 성별, 출생년도 등을 끌어올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에서 Scrapy, BeautifulSoup4 패키지를 활용하여 인명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등단지나 대학 졸업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작가의 이름을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 입력하여 찾거나, 계간지에 실린 인명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밖에 없었다.

2-4. 단행본 출판 및 문학상 데이터

6)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과 통계 분석에 R을 사용했으며, 연결망 시각화는 gephi를 사용하였다.

계간지 서지 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1994년부터 2014년까지 3대 출판사(창비, 문학동네, 문학과 지성사)의 문학 관련 단행본(시, 소설, 산문, 평론 등) 데이터를 정리했다. 작가 별로 출판한 단행본 제목과 출판년도를 기입했다. 21년간 3대 출판사에서 문학 단행본을 낸 저자는 1096명(저자가 단체인 경우 포함)이었으며, 그 중 752명이 3대 계간지에 게재하거나 호명된 바 있는 문인이었다.

문학상 데이터에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3대 출판사에서 주관한 문학상과 그 외 대표적인 문학상인 동인문학상과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을 포함시켰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비 -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창비장편소설상, 백석문학상
문학과 지성사 - 문지문학상, 이산문학상
문학동네 - 문학동네 작가상, 문학동네 소설상
조선일보 - 동인문학상
문학사상 - 이상문학상
현대문학 - 현대문학상

위 10개 문학상 수상자와 수상 당시 참여한 본심과 예심 심사위원을 모두 입력했으며, 단행본에 상이 수여되었다면 수상 단행본의 출판사를 기입하고, 수상 전에 계간지에 게재된 경우라면 작품이 게재된 문예지와 그 문예지 발행 시기(월 혹은 계절)를 기입했다. 또한 수상 작품이 이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행본을 출간한 출판사를 기입했다.

2-5. 데이터 통합

3대 계간지 데이터는 하나의 엑셀 시트에 담았다. 계간지에 실린 기사의 성격에 따라 9개의 종류로 나누었다. 기사 역시 마찬가지로 인명 데이터처럼 고유 id를 부여했다. 아래 9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회과학(정치, 경제, 사회)이나 비문학 텍스트는 id를 부여하지 않고 제외했다.

- 1 : 시평(時評)
- 2 : 작가(작품)론
- 3 : 서평
- 4 : 소설, 희곡, 동화, 시나리오
- 5 : 시, 동시
- 6 : 논문
- 7 : 수필, 산문
- 8 : 좌담(3인 이상), 대담(1대 1)
- 9 : 인터뷰

데이터 통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상(subject)을 따로 입력하는 일이었다. 본고에서는 '대상'(subject)이라는 열을 추가하여 평론(시평, 작가론, 작품론, 서평, 논문 포함)과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문인 이름을 따로 기입했다. 평론 제목이나 부제에 표기된 ‘대상’의 이름을 참고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743명의 문인이 21년간 3대 계간지에서 ‘대상’으로 호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정실주의의 징후: ‘순혈 작가’, ‘주도 작가’, ‘인정 작가’

3-1. 게재, 호명, 출간 양상에 따른 소설가의 분류

2015년 현재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협회에 등록된 소설가 수는 각각 860명과 491명이 다. 두 협회에 복수 가입된 소설가와 어느 쪽도 가입하지 않은 소설가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대략 1000명 내외의 소설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계간지 서지 정보 데이터 분석 결과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 동안 3대 계간지에 소설을 게재하거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호명된 작가는 403명이었다. 우리는 이렇듯 3대 계간지에 소설을 ‘게재’하거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호명’된 403명의 소설가를 3대 계간지에서 작사가 요구하는 문학적 수준에 부합하는 소설가로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인정 작가’로 부르하고자 한다.

하지만 3대 계간지에 한두 차례 소설을 게재하거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호명되었다고 특정 계간지를 대표하는 소위 ‘창비 작가’ ‘문동 작가’ ‘문지 작가’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특정 계간지를 대표하고 또한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소설가라면 특정 계간지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작품을 게재하고, 그 계간지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한 차례 이상 호명되며, 그 계간지 간행 출판사에서 한 권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창비 작가’ ‘문동 작가’ ‘문지 작가’의 실체를 확인·검증하기 위해 3대 계간지 중 특정 계간지에 작품을 한 차례 이상 ‘게재’하고, 그 계간지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한 차례 이상 ‘호명’되며, 그 계간지 간행 출판사에서 한 권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한 소설가를 3대 계간지 중 특정 계간지의 소설을 주도했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주도 작가’로 부르하고자 한다. 문학권력 비판론에서 제기한 ‘스타 작가 스카웃’ 혐의가 실재한다면 신경숙, 은희경 등 ‘스타 작가’는 복수의 계간지에서 유력한 주도 작가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은 3대 계간지가 자기 계간지 혹은 그 간행 출판사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들에게 더 많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그들의 문학적 성취보다 과도한 호평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이러한 ‘혐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정 계간지 주도 작가 중 그 계간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를 편의상 ‘순혈 작가’로 부르하고자 한다. 순혈 작가는 등단, 곧 작품 활동의 출발 지점이 다르므로, 복수의 계간지를 통해 등단하지 않는 한, 그 정의상 복수의 계간지에 중복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예지 ‘게재’, ‘호명’, 단행본 ‘출간’ 양상으로 본 소설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혈 작가: 등단 *그리고* (작품) 게재 *그리고* (비평, 시평, 인터뷰를 통한) 호명 *그리고* (단행본) 출간

주도 작가: (작품) 게재 *그리고* (비평, 시평, 인터뷰를 통한) 호명 *그리고* (단행본) 출간

인정 작가: (작품) 게재 또는 (비평, 시평, 인터뷰를 통한) 호명⁷⁾⁸⁾

3-2. ‘순혈 작가’의 계간지별 특성

‘순혈 작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작가는 『창작과 비평』 5명(<표 1>), 『문학동네』 23명(<표 2>), 『문학과 사회』 20명(<표 3>)으로 총 48명이다.

가시적인 특징은 『창작과 비평』이 다른 2대 계간지에 비해 순혈 작가의 숫자가 확연히 적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과 비평』이 자사를 통해 등단한 작가라고 하여 게재, 호명, 출간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대 계간지가 자사를 통해 등단한 작가를 편애하고 밀어준다는 문학권력 비판론자의 주장은 적어도 『창작과 비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창작과 비평』 순혈 작가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신진부터 중견까지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하며, 5명 모두 그 나름의 문학적 영역을 개척했거나 개척하고 있다.

우리는 인정 작가 403명 중 지난 21년 간 3대 계간지에 게재, 호명, 출간된 건수를 모두 합한 값의 ‘총 순위’를 매겨보았다. 총 순위가 높다는 것은 3대 계간지 모두에서 게재, 호명, 출간이 잦았음을 의미한다. 1위는 예상대로 도합 87건에 달하는 신경숙이었고, 성석제(72건), 김영하(71건), 은희경(67건), 이청준(6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순위는 3대 계간지와 그 간행 출판사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는 순위로서 대중적 인지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훈(40건: 17위), 공지영(18건: 64위) 등은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3대 계간지 총 순위가 낮다.

『창작과 비평』 순혈 작가의 총 순위는 1990년대 이후에 등단한 김애란(2003: 15위), 공선옥(1991: 21위), 김사과(2005: 33위) 등이 1980년대 등단한 공지영(1988: 64위), 김영현(1984: 82위)보다 더 높다. 이는 지난 21년 동안 공지영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현 같은 중견 작가보다 1990년대 이후 등단한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 3대 계간지와 더 긴밀한 문학적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문학동네』 순혈 작가는 23명으로 『창작과 비평』에 비해 집단의 규모 자체는 크지만, 김훈, 박민규, 천명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젊은 작가로 중량감이 떨어진다. 창간된 지 21년에 불과한 『문학동네』는 1년에 한 명 이상의 순혈 작가를 배출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자사를 통해 등단한 작가에게 게재, 출간과 같은 문학 활동 기회를 최대한 제공했음은 물론 자사 계간지의 비평을 통해 자사가 발굴한 젊은 작가들의 문학적 의미를 최대한 소개하고 홍보했던 셈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자사를 통해 등단한 작가를 비정상적으로 우대하고 밀어준 셈이다.

23명의 『문학동네』 순혈 작가 중 총 순위 40위 이내에 포함되는 비교적 지명도 있는 작가 숫자는 2명에 불과하고, 3대 계간지 게재, 호명, 출간 건수 10건 이하로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는 109위 이하 작가 숫자는 14명에 달한다. 이는 『문학동네』의 경우 자사를 통해 등단한 작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문학권력 비판론자가 비판한 3대 계간지의 등단- 게재- 호명- 출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스타 작가’ 만들기 혐의는 『문학동네』의 경우 그러한 의도는 있었지만, 그 결과는 성공적이

7) ‘그리고’와 ‘또는’은 논리식의 “and”와 “or”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는’은 그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것이다.

8) 인정 작가의 범위는 3개 문예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작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원자료는 3개 문예지의 목차이다. 따라서 출판을 어느 한 곳에서 했지만, 게재나 호명을 경험하지 못한 작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는 『창작과 비평』이나 『문학동네』와 같은 뚜렷한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 21년 동안 20명의 순혈 작가를 배출한 것 역시 『문학동네』와 비슷한 정실주의의 혐의를 지울 수도 있지만, 1970년에 창간된 『문학과 지성』은 1994년 창간된 『문학동네』보다 2배 이상의 역사가 있다. 복거일(1987), 채영주(1988), 최윤(1988), 한강(1993) 등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에는 『문학동네』 창간 이전 등단한 작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지난 21년 이내에 등단한 작가로 범위를 줄이면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 중 총 순위 40위 이내의 작가는 7명, 109위 이하의 작가는 8명으로 작가로서 지명도와 활동량 면에서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들이 『문학동네』 순혈 작가들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

순혈 작가 명단에서는 1980년대 이전 등단한 작가들의 경우 민족문학, 민중문학, 문학의 사회적 참여를 지향하는 『창작과 비평』, 미적 자율성과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문학과 지성』의 정체성과 이어진 작가들이 대부분인 반면, 1990년대 이후 등단한 작가들의 경우 계간지 별로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학동네』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지만 나머지 2대 계간지 역시 1990년대 이후 등단한 순혈 작가를 어떠한 문학적 이유 때문에 지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3-3. 복수 계간지 중복 '주도 작가'

다른 지면을 통해 등단했지만, 특정한 계간지에 작품을 게재하고, 그 계간지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호명되고, 그 계간지 간행 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을 출간한 '주도 작가'는 『창작과 비평』에 60명, 『문학동네』에 99명, 『문학과 사회』에 62명 있다. 하지만 이들을 다 합친 숫자는 150명에 불과하다. 복수의 계간지에 중복해서 주도 작가로 분류되는 작가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두 계간지에서 주도 작가로 분류되지 않고 한 계간지에서만 주도 작가로 분류되는 작가는 『창작과 비평』 10명, 『문학동네』 20명, 『문학과 사회』 13명 등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다.

주도 작가 중 3대 계간지 모두에 중복되는 작가는 총 26명이며, 그 명단은 <표 4>와 같다. 3대 계간지 모두에 중복된 주도 작가가 26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설 분야만큼은 3대 계간지가 획일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3대 계간지에 게재, 호명, 출판 건수를 모두 합한 값의 총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에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작가는 이청준(5위: 『문학과 사회』 주도 작가), 황석영(8위: 3대 계간지 인정 작가), 박민규(12위, 『창작과 비평』 - 『문학동네』 주도 작가), 김훈(17위 : 『문학동네』 순혈 작가) 단 4명에 불과하다.

계간지 2곳의 복수 주도 작가까지 확대할 경우, 3대 계간지의 작가 '공유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창작과 비평』 - 『문학동네』 중복 주도 작가는 23명(<표 5>)이고, 『문학동네』 - 『문학과 사회』 중복 주도 작가는 22명(<표 6>)이며, 『창작과 비평』 - 『문학과 사회』 중복 주도 작가도 1명(<표 7>) 있다.

계간지 2곳 중복 주도 작가의 경우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 『창작과 비평』-『문학과 사회』 중복 주도 작가가 1명뿐이라는 것이 특이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 계간지 3곳 중복 주도 작가가 26명이나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70~80년대 『창작과 비평』 대 『문학과 지성』의 문학적 대립과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두 계간지의 조합에 비해 이 두 계간지의 조합에 더 적은 중복 주도 작가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

다.

계간지 중복 주도 작가는 총 순위가 높은 작가일수록 두드러진다. 총 순위 30위 이내의 작가 중 계간지 한 곳에서만 주도 작가 범주에 포함되는 작가는 『문학과 사회』 이청준(5위), 최인훈(24위), 김원일(27위), 『문학동네』 전경린(29위) 단 4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1994년 이후 3대 계간지에서는 주도 작가를 전면적으로 공유해왔기 때문에 1970~80년대 ‘창비 작가’ ‘문지 작가’와 같이 한 계간지를 대표하는 ‘간판 작가’를 더 이상 찾기 어렵다. 3대 계간지는 소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970~80년대 『창작과 비평』 대 『문학과 지성』처럼 뚜렷한 문학적 이상과 이념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주도 작가 공유 현상이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의 주장처럼 ‘스타 작가’ 영입 경쟁 때문인지 복수 계간지 중복 주도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과 수준이 어느 문학적 그룹의 시각에서 보든지 탁월하기 때문인지는 해당 작가들의 작품성에 대한 엄격한 문학적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유가 어느 쪽이든 1994년 이후 3대 계간지와 출판사에서 게재, 호명, 출간된 작가와 작품의 성격이 상당히 획일화되었으며, 따라서 각 계간지의 고유한 색깔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4. 문예지를 매개로 한 소설가들의 문학 지형: 사회 연결망 구조

4-1. 소설가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

연구의 목적상 우리는 소설가들을 순혈(등단 그리고 게재 그리고 호명 그리고 출간), 주도(게재 그리고 호명 그리고 출간), 그리고 인정(게재 또는 호명) 작가의 세 층위로 구분했다. 각 작가군의 분류 기준상 인정 작가군이 주도 작가군을, 주도 작가군이 순혈 작가군을 포함한다.

우리가 세 가지 층위에서 작가들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자기 문예지에서 등단한 작가들에 대한 문예지들의 후견”이 조직적인(systematic)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량적 검증(quantitative test)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통계적 검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작가들을 포함하는 인정 작가군이지만 이를 주도과 순혈, 그리고 문예지별 주도와 순혈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보다 입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과 예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크게 점으로 이루어진 작가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거리로 표시하는 선들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는다. 하지만 관계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림과 분석 방향이 정해진다.

작가들 사이의 직접적인 친소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속성들에 정도에 따라 그 거리를 계산하였다.⁹⁾ 예를 들어 같은 문예지에서 등단한 김종광과 김숨의 거리는 다른 관계들에 비해 1만큼 짧아진다. 기본적으로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활동이 만들어주는 작가들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등단, 게재, 호명, 출간에서의 비슷한 정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1 ~ 5>).

이처럼 사람들의 비슷한 정도로 연결망을 구성하는 접근은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 많을수록 사회적·개인적으로 더 가까울 것이라는 동종애(homophily)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¹⁰⁾

9) Breiger, Ronald L. 1974.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 *Social Forces* 53(2):181-90.

10) McPherson, Miller, Lynn Smith-Lovin, and James M Cook.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이 원칙을 따라 우리는 별도의 연결망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는 작가 403명의 연령, 성별, 등단년도, 대학, 학부 전공, 대학원, 대학원 전공 상의 공통점을 통해 분석적으로 독립된 연결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림 6>).

<그림 1 ~ 6>은 이상의 기준으로 그려진 사회연결망 그림(sociogram)이다. 그림에서 점(node)의 색이 붉을수록(반대는 초록색, 중간은 주황, 노랑), 그리고 원의 크기가 클수록 나머지 인물들과의 공통점이 많다. 이는 단순히 인연의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문학적 활동도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김훈과 박범신은 공통적으로 389명의 작가들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1994-2014년 동안의 활동들(게재, 호명, 출판)을 고려했을 때 김훈은 389명과의 공통점의 정도가 22,568인 반면, 박범신은 16,614이다. 따라서 김훈이 박범신에 비해 그림의 중앙에 더 근접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슷한 이력 때문에 연결된 사람이 많고, 동시에 문학적 활동이 많다는 것이 작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자료가 구성된 방식을 고려한다면, 연결망 그림에서 나타나는 작가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가깝다. 이들의 위치는 등단, 게재, 호명, 출간을 결정하는 문예지 편집위원회의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4-2. 소설가 문학 지형의 특성과 그 의미

<그림 1>은 1994-2014년 사이 3개 문예지 목차에 등장한 소설가 403명의 유사성과 활동량을 표현한 연결망 그림이다. 가운데 큰 붉은색으로 표시된 작가들은 당연히 대중적 인지도도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 문예지에서 골고루 다뤄준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작가들이 포진해 있는 모양을 보면 사람들이나 조직들의 ‘생태계적 구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사회학의 생태계 이론에 따르면 지위가 높고 자원이 많은 행위자들이 전체의 중심에 포진해 있다. ‘일반자(generalist)’라고 불리는 이들의 특징은 연결의 수가 많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집단들과 고루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 생태계에서는 재벌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주변의 위치에 포진한 행위자들은 ‘특수자(specialist)’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비슷한, 혹은 같은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일한 정체성에 귀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실제로 큰 붉은색으로 표시된 작가들은 ‘일반자’의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김영하, 김연수, 김애란, 신경숙, 한강 등 2000년대 한국문단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다. 이들이 모두 2000년대 이후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3대 계간지에서 모두 주도 작가 이상의 위치를 점유하며, 서로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모두가 같은 문예지에 등단하여 작가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나, 3대 계간지에서 게재되고, 호명되며 출판까지의 과정을 거쳐 그 거리는 좁혀졌다.

한국 소설가의 연결망이 생태계-사회학 이론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림 2>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¹²⁾ <그림 2>는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415-44.

11) Hannan, Michael T., and John 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929-64.

12) <그림 1>에서 잘 보이지 않던 개별 작가들의 위치와 관계가 <그림 2>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드러난다. 원의 정 가운데 부근에 김영하, 신경숙, 윤대녕, 성석제, 김연수, 은희경, 박민규, 김훈, 김애란 등 <그림 1>에서 언

403명 인정작가군 가운데, 특정 문예지에서 게재, 호명, 출간 모두를 경험한 주도 작가들만을 추려 그린 것이다. 이들을 거른 기준은 게재, 호명, 출간이지만, 이들을 연결한 기준은 등단, 게재, 평론, 출판이다. 여기서 우리는 각 문예지의 순혈 작가들을 따로 표시하였다. 『창작과 비평』은 붉은색 사각형, 문동은 파란색 원, 그리고 문지는 노란색 육각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예지별로 순혈 작가들이 배치되는 방식이다. 『창작과 비평』은 가장 수가 적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크고 붉은 원들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 엘리트들만을 양성한다는 느낌을 준다. 이에 비해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들은 가장 넓은 계층들에 퍼져 있다. 백민석, 정이현 등이 핵심의 위치에 있는 반면, 박혜상이나 이명행처럼 연결망의 가장 외곽에 있는 순혈 작가들은 모두 『문학과 사회』 소속이다. 이에 반해 『문학동네』의 작가들은 가장 수가 많으면서도 순혈 작가군 중에 최외곽에 위치한 작가들이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자료가 『문학동네』의 창간 시점을 시작점으로 삼은 것을 감안한다면 『문학동네』 순혈 작가들의 이 같은 분포는 괄목할만한 것이다. 그 원인이 『문학동네』가 1994년 창간호에서 표방한 탈이데올로기와 다양성 추구의 결과인지,¹³⁾ 남다른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수와 시장에서의 성과 측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림 1>의 가장 가운데 작가군에는 『문학동네』 순혈 작가인 박민규, 김훈, 천명관이 위치하고, 『문학동네』 주도 작가인 김영하, 은희경, 김연수, 윤대녕, 신경숙 등이 있다. 이 작가들은 나머지 두 계간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편이지만 『문학동네』 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두 문예지가 오랜 시간 표방해온 동인지 방식(『창작과 비평』이 황석영을, 『문학과 지성』이 이청준을 호명하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양상이다.

또한 『문학동네』의 이 같은 편집-영업 방식은 문예지들간의 인적 교섭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반결과로 자주 회자되는 것이 ‘문동 작가’였던 신경숙이 『창작과 비평』의 ‘호명’을 받고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이다. 순혈 작가가 5명에 불과했던 『창작과 비평』은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추구한 자신들과 다소 어울리지 않던 신경숙을 끌어들이으로써 문학 시장에서의 위치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최근 ‘신경숙 표절 사태’에서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회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6>은 앞서 언급한 사회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연결망이다. <그림 6>은 문학 활동을 반영한 <그림 1>보다 훨씬 느슨하게 구성돼 있다. 이는 문단에 진입한 사람들의 속성 자체가 문단 활동의 조직화 정도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

급한 중심 작가군이 다시 등장한다. 이들은 앞에서 게재, 호명, 출판을 합산한 총 순위에 상위권에 있던 작가들이다. 작가 이름에 붉은 정도가 진할수록 세 계간지에서 동시에 게재, 호명, 출판과 관련 있음을 뜻한다. 반면 이름에 칠해진 색깔이 열거나 없는 소설가들은 두 계간지에서 혹은 하나의 계간지에서 게재, 호명, 출간 횟수가 낮다. 이를 테면 소설가 박현욱과 이호철은 각각 『문학동네』와 『창작과 비평』에만 게재, 호명, 출간 정보가 있다. 하지만 박현욱의 이름에 색깔이 표시된 건 그가 3요소 점수가 17이고, 이호철은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3, 4, 5>는 주도 작가의 연결망은 각 문예지별로 나눈 것이다. 해당 문예지의 순혈작가들을 <그림 2>처럼 표시(붉은색 사각형, 문동은 파란색 원, 그리고 문지는 노란색 육각형)하였다.

13) “그런 의미에서 『문학동네』는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대신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입장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특정한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문학의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편집부, 「계간『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제1호, 1994 겨울)

계 3가지 묶음들이 눈에 띈다.

첫 번째로 최상단에 있는 서울대 비(非)국문과 남자 소설가 묶음이 있다. 김승옥, 이인성, 이청준, 김소진, 서정인 등 서울대 불문과, 독문과, 영문과 등 비국문과 출신 소설가들이다. 이 그룹에서 김승옥, 이청준은 훗날 ‘문학과 지성사’의 모태가 되는 ‘산문시대’를 결성했고, 현기영은 『창작과 비평』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로 원 최하단에 문예창작학과 출신의 여성 소설가 그룹이 보인다. 김애란, 편혜영, 하성란, 신경숙 등 서울예대, 중앙대, 한예중 등의 문예창작학과 출신 여성 소설가들이다. 전체 403명의 소설가 중에 여성 소설가는 185명으로 대략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문창과 출신 여성 작가들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문창과 여성 소설가 집단 바로 우상단에 문창과 출신 남자 소설가 집단이 보인다. 박민규, 김종광, 백민석, 김종렬 등이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남성 소설가들이다. 이들은 문창과 여성 소설가들만큼 조밀하게 집단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결망 시각화를 통해 본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지형은 분석이라기보다 묘사에 가깝다.¹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문단을 둘러싼 몇 가지 사실들과 이해들에 입각해 이 연결망의 양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기술하는 동안, 우리는 문학권력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연구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는 연결망 그림에서 각 문예지의 대표 작가들이 사실은 다른 문예지들과도 연결된 ‘일반자’들이고, 이들의 배후에 개별 문예지에 상대적으로 더 속박돼 있는 ‘특수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1994-2014년에 걸친 한국 문단의 역사적 구체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생태계-사회학’ 이론의 일반성 아래 포섭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단의 정파성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권력의 비윤리성을 찾는 것은 일반자와 특수자들이 불균질하게 분포돼 있기 마련인 사회 구성의 일반적 원리를 도외시한 주장이다.¹⁵⁾ 따라서 우리가 검증해야 할 문제는 이와 같은 분화의 양상이 아니라, 이 분화가 ‘비문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림 1>과 <그림 6>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에 답하고자 한다.

둘째, 1994년 이후로 『문학동네』가 보여준 광폭의 행보가 기존의 문예지 중심 정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예지별 무리짓기를 완전히 해체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창작과 비평』과 신경숙을 둘러싼 세간의 이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생산자에 대한 문학 시장의 위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문예지 정체성은 그 실효성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추세로서의 이데올로기-문예지 정체성의 해체가 유의미할 정도로 해체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문학 권력의 주체로서 문예지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을 도울 것이다.

5. 문학의 비문학적 기반에 대한 연결망-통계 검증

5-1. 문학적 거리의 비문학적 기초: 문학적 관계와 사회인구학적 관계 사이의 상관성 검증

14) 네트워크 그림은 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만, 보는 사람의 가독성과 자료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원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수학적 기준들만을 적용하면 일반 독자의 눈에는 전혀 의미 없는 그림이 펼쳐지기도 한다.

15) Bourdieu, Pierre, and Randal Johnson. 199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우리는 <그림 6>을 구성한 사회인구학적 관계가 <그림 1>을 구성하는 문학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네트워크-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두 그림의 시각적 구조가 매우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는 다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이론적으로도 각기 비문학적 관계(<그림 6>)와 문학적 관계(<그림 1>)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이와 같은 분석적-이론적 독립성(orthogonality)은 인과성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¹⁶⁾ 또한 여기서의 비문학적 관계들이 대체적으로 문학적 관계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도 인과성 추론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모델이 검증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두 소설가 사이의 사회인구학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두 소설가 사이의 문예지 활동 상의 유사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과는 성별, 나이, 등단년도, 대학, 학부 전공, 대학원, 대학원 전공 상의 유사성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이들의 문학 활동 상의 유사성 (등단, 게재, 호명, 출간)이 0.53씩 증가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99.9% 이상 유의했다 ($p < 0.001$).¹⁷⁾

두 소설가 사이의 문학적 활동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자료 (<그림 1>)에서 가까운 위치에 속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애란과 조경란은 3대 계간지에서의 활동(게재, 호명, 출간)이 남들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림 1>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중심부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다. 한편 이들은 <그림 6>에서 ‘문예창작과 출신의 여성 작가’라는 사회인구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¹⁸⁾

우리가 모델을 통해 검증한 것은 <그림 6>에서 가까우면, <그림 1>에서도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다. 김애란과 조경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조 사이의 유사성은 특정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문학적 지형 안에서 중심부에 속하느냐 주변부에 속하느냐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예에서 ‘문예창작과 출신의 여성 작가’는 문학적 활동과 성취에 긍정적인 사회인구학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물론 우리의 통계 검증은 특정 출신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전체 403명이 만들어내는 81,003개 양자 관계들이 평균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분석한 403명 소설가들은 평균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문학적 활동과 성취의 차이가 예측된다는 뜻이다.

5-2. 문예지 중심의 정파성: 작가의 위신(status)과 사이성(betweenness)에 미치는 문예지의 효과

우리는 <그림 1> 자료를 이용하여 403명 전체 지형 속에서 개별 작가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중요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하나는 ‘위신 혹은 지위(status)’라고 불리는

16) Greene, William H. 2008. *Econometric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17) 우리가 적용한 통계 모델은 일반적인 통계 모델과 다르다는 점 또한 지적돼야 한다. 연결망 자료는 일반 통계 모델이 가정하는 사례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작위 시뮬레이션(randomization)을 이용해 연결망 자료의 혼종효과(confounding effects)와 이로 인한 자기상관성의 편향을 통제하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1000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95% 수준에서 우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QAP test: $\Pr(>=b) = 0.026$). Dekker, D., David Krackhardt, and T. A. B. Snijders. 2003. "Multicollinearity Robust QAP for Multiple Regression." *CASOS Working Paper*, Carnegie Mellon University.

18) 김애란은 한예중 극작과를 졸업했으나, 위에서 설명했듯 문예창작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하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작과도 문예창작학과로 분류했다.

사회적 중요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성(betweenness)’이라고 불리는 연결망 분석에 좀 더 특화된 개념이다.

사이성은 연결망에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⁹⁾ 여러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이성이 높은 사람은 대개 거간이거나 통신의 관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의 특성상 <그림 1>에서 사이성이 높은 작가들은 주로 중심에 붙고 큰 원들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3대 계간지에서 골고루 활동함으로써 3대 계간지에만 국한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성이 높고 명망 있는 작가들이 실제로 3대 계간지에만 속한 작가들 사이의 교류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사이성이 높은 작가들이 전체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이 3대 계간지에서 골고루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3대 계간지를 중심으로 한 3개의 작가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그림 3, 4, 5>). 물론 3대 계간지의 작가군이라고 할 때, 이들이 한 계간지에서만 활동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자기 문예지라고 할 만한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소설가들이 많고, 이들은 자신보다 높은 활동과 호명을 통해 연결망의 중심에 가 있는 소설가들에 비해 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신(status)은 3대 계간지를 중심으로 한 소설가 연결망에 대한 좀 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망 분석에 기초한 사회학 연구에서 개인의 위신은 그(녀)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양과 질로 측정한다. 즉 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친구의 위신이 높을수록 해당 개인은 높은 위신 점수를 받는다.²⁰⁾ 따라서 무작정 연결된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위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만약 위신이 낮은 친구들이 많거나, 섞여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²¹⁾ 따라서 <그림 1>에서 많은 연결선이 있어 중앙에 위치한 작가들보다, 위신이 높은 작가들과만 선별적으로 맺어져 있는 작가의 위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403명에 대한 위신 점수를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위신 점수를 갖은 9명의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이상권, 김하기, 김형수, 구병모, 김남일, 박인홍, 오성용, 임세희, 최정화. 이들은 김형수, 김남일, 박인홍을 제외하곤 모두 『창작과 비평』에서 등단하여 호명과 게재 등을 거친 『창작과 비평』 인정 작가군에 속한다.²²⁾ 9명 모두 『창작과 비평』에서 출간한 이력이 없고, 김남일, 김하기, 김형수, 구병모의 『문학동네』 출간 이력을 제외하면, 9명 모두 그 어느 계간지 간행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출간한 기록이 없다. 등단, 게재, 호명만 고려하면 (<표 8>), 『문학동네』와 『창작과 비평』에서의 활동이 같은 김남일과 문지에서 등단, 호명을 경험한 박인홍을 제외한 7명 모두 『창작과 비평』에서의 활동이 전체 활동의 60~100%를 차지한다.

『창작과 비평』에 치우쳤으며, 전반적으로 적은 활동량을 보인 이들이 403명 전체를 대상

19) Freeman, Linton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215-39.

20) Sauder, Michael, Freda Lynn, and Joel M. Podolny. 2012. "Status: Insights from Organizational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1):267-83.

21) Bothner, Matthew S., Richard Haynes, Wonjae Lee, and Edward Bishop Smith. 2010. "When Do Matthew Effects Occur?"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4(2):80-114.

22)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창작과 비평』의 순혈 작가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창비를 통해 단행본을 출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으로 한 위신 순위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작가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는 문예지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설명이다.

『창작과 비평』 인정 작가들이 높은 위신의 가진다는 것은, 위신을 측정하는 방식의 특성상 이들이 연결된 작가들이 위신이 높고, 반대로 위신이 높지 않은 작가들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작가 개인의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문예지들의 선택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량을 가지면서, 『창작과 비평』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 이들은 출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잊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문예지, 특히 『문학동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행동이 읽힌다. 하나는 『문학동네』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규모가 큰 작가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신을 관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문학동네』는 작가에게 활동 기회를 주는 것이 활동량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창작과 비평』을 통해 문학계에서 사회적 위신이 높아진 이들이 어쨌든 모두 『문학동네』에서만 출간을 했다는 점이다. 『문학동네』는 자기 작가의 이후 이력을 관리하는 것보다 시장성이 있는 작가들을 판별하고 이들을 자사에서 출간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료의 양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 1) 작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작가의 문학적 활동량과 성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2) 사이성이 높은 작가들이 전체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건, 실질적으로 문학계가 문예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집단들로 분화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 3) 『창작과 비평』 작가들은 다른 문예지 작가들에 비해 자기 문예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창작과 비평』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신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 4) 『문학동네』는 공격적 마케팅과 작가확보로 큰 규모의 작가군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가들의 위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문예지의 위신 높은 작가들을 자사에서 출간하도록 하는 시도들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결론에 근거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는 작금의 문학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자와 특수자, 문학의 사회적 기반과 같은 사회적 기제(social mechanism)들은 기실 우리 삶의 여러 경험적 맥락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험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일차 목표는 이 같은 기제들의 일반성을 경험 자료를 통해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 집단은 물론이고 기업, 정치엘리트, 기업 등의 사회적 장에서 일반자-특수자, 사회적 연고 등은 너무도 뚜렷이 관찰되고 예측된다. 사회의 일부인 문학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이런 면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문학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성찰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주장할 때 나타난다. 이 같은 경우 문학은 향우회, 기업집단, 정치엘리트들과 달라야 할 철학적, 도덕적 이유를 갖게 된다. 문예지의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섹트(sect)’와 ‘패거리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반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보수적 정부, 사회의 상업주의, 문화적 개인주의에 대항한 결과였다는 이유가 제기되곤 했다.²³⁾ 과거 문예지는 “몇몇 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제적인 방식으로 제자를 길러내고 문단을 관리하던 옛날의 체제에

23) 신동문, 이호철, 신경림, 염무웅, 백약청, 『『창비』 10년: 회고와 반성.』, 『창작과비평』 1976 봄, 4~32면.

서 벗어나 순수하게 작품의 문학성만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문학의 장애 심었다.” 하지만 우리 분석에서 드러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문예지들이 빚어낸 ‘정실주의’는 향우회, 기업집단, 정치엘리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국의 미숙한 문학교육제도가 권력화하기 전에, 문예지가 문학의 경향성을 이끌어가는 유용함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주장조차도 문예지들 내부의 권력화라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²⁴⁾

5-3. 문학상의 비문학적 성격 추론

문학권력 비판논자들은 3대 계간지가 주관하는 문학상이 상업주의와 정실주의라는 두 가지 비문학적 권력이 개입하여 본연의 문학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한다. 3대 계간지를 간행하는 거대 출판사들은 자사가 간행한 소설에 문학상을 수여하고, 그 후광 효과로 언론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그 소설의 홍보와 판매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등단 - 게재 - 호명 - 출간’에 이은 화룡점정과도 같은 ‘스타 작가’ 만들기의 마지막 절차가 문학상이라는 것이다.

3대 계간지뿐만 아니라 민음사가 주관하는 ‘오늘의 작가상’, 문학사상사가 주관하는 ‘이상문학상’ 등 문학상의 권위가 ‘스타 작가’ 만들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문학상이 그 주관 출판사에게 큰 상업적 이익을 안겨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정 문예지에서 신작을 공모해 그 수상작을 그 문예지 발행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형식의 문학상이라면, 결과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출판사의 상업성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3대 계간지에서 주관하는 소설 분야 문학상은 창비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신동엽창작상)’, ‘창비장편문학상’ 등 3종, 문학동네 ‘문학동네 작가상’, ‘문학동네 소설상’ 등 2종, 문학과 지성사 ‘이산문학상’, ‘웹진 문지문학상’ 등 2종 도합 7종이다. 그 중 ‘창비장편문학상’과 ‘문학동네 작가상’, ‘문학동네 소설상’이 신작 소설을 공모해 계간지 발행 출판사를 통해 간행하는 공모 문학상이고, ‘웹진 문지문학상’도 매달 선정한 ‘이달의 소설’을 1년마다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따라서 3대 계간지에서 주관하는 7종 문학상 중 4종의 문학상이 문학상 주관 출판사와 수상 소설 출간 출판사가 100% 일치한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 기 출간 소설에 수상하는 3종의 문학상 중 창비에서 주관하는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2종의 문학상에서 지난 21년 간 자사 간행 소설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비율은 총 23편의 수상작 중 9편으로 39%다. 나머지 2대 출판사 문학동네와 문학과 지성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수상작이 15편으로 늘어나고 비율도 65%로 증가한다.

창비 주관 문학상에서 『창작과 비평』 주도 작가가 수상하는 비율은 23명 중 20명으로 무려 87%에 달한다. 만해문학상 2004년 수상자 홍석중은 벽초 홍명희의 아들로 북한 작가이기에 인정 작가로 분류되었고, 2005년 수상자 김원일은 ‘문지 작가’로 분류되지만 『창작과 비평』에 출간을 제외한 게재, 호명 정보가 있는 인정 작가다. 창비에서 지난 21년간 소설로 문학상을 받은 한국 작가(북한 국적자 제외) 22명 중 조갑상, 오수연 단 2명을 제외한 수상자 20명은 계간지 『창작과 비평』과 밀접히 관계를 맺은 작가인 것이다.

<표 10>을 보면, 지난 21년간 이산문학상에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비율은 7편 중 2편으로 28%다. 나머지 2대 출판사의 작품이 수상작이 된 경우는 5편으로 늘어나 71%로 올라간다. 『문학과 사회』 주도 작가 중 이산문학상을 수상한

24) 정과리, 이광호, 오형엽, 박철화. 「좌담:21세기 문학과 문예지의 좌표」, 『작가세계』 1999 여름, 119-62면.

작가는 5명으로 비율은 71%다. 『문학과 사회』에 게재 정보가 없어 인정 작가로 분류된 김주영, 대표적인 ‘창비 작가’인 황석영 등은 문학사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작가다.

이렇듯 3대 계간지가 주관하는 문학상 수상작은 자사에서 출간된 작품이나 나머지 2대 출판사에서 출간된 작품이 선정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곧바로 지난 21년간 3대 계간지가 주관한 문학상에 정실성, 상업성이 개입한 것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 지난 21년간 3대 계간지에 게재, 호명, 출간된 건수의 합을 기준으로 한 총 순위 상위 20명 중 3대 계간지가 주관하지 않는 대표적인 문학상인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3대 문학상의 수상 비율은 총 66건 중 31건으로 47%다.²⁵⁾ 3대 계간지 주관 문학상이 다른 매체가 주관하는 문학상에 비해 더 심하게 정실성, 상업성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주도 작가란 계간지가 그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로서 어떤 계간지의 주도 작가가 그 계간지의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이 정실주의라는 비문학적 이유가 아니라 ‘문학적 가치’라는 문학적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쩌면 어느 계간지의 문학상이 그 계간지의 주도 작가에게 과도하게 수여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가 어떠한 문학적 가치 때문에 그 계간지의 주도 작가로 대우받았는지 해명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그 이유와 상관 없이 3대 계간지에서 게재, 호명, 출간 건수가 올라가면 자사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이건 다른 매체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이건 수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고 싶은 작가라면, 3대 계간지와 긴밀한 ‘문학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6. 결론: 의의, 한계, 남은 과제들

문학에서 ‘권력’의 문제는 문학의 특수한 성격의 이해에서 시작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학 활동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문학적 이상과 이념을 공유한 문학인들이 배타적인 문학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이 ‘문학적’이기만 하다면 문학 행위로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문학 권력 논쟁은 3대 계간지의 ‘독점’과 ‘배타성’에 비문학적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21년 동안 3대 계간지 서지 정보와 그곳에서 활동한 소설가 403명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통해 정량적·통계적 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지난 21년간 3대 계간지에서 어떤 소설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지난 21년간 ‘순문학 소설계’를 주도한 소설가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량적·통계적 분석 결과는 엄격한 작품 분석을 통한 문학적 평가를 위한 전제 또는 화두에 불과하다. 예컨대, 우리 연구는 지난 21년간 3대 계간지가 신경숙, 성석제, 김영하 순으로 게재, 호명, 출간이 많았다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뿐, 그러한 3대 계간지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나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부득이 이번 연구는 소설가들에 국한시켜 진행했다. 문학 권력의 실체에 대한 검증은 그것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비평가들과 ‘객체’라 할 수 있는 소설가들의 관계성 규명이 핵심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비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문예지를 매개로 한 비평가들의 사회적 지형, 비평가와 소설가의 관계에 대한 사회 연

25) 21×3 (21년간 3대 문학상 수상작) + 3 (94년 이전 수상 3회) = 66회

결망 분석,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등 특정 계간지를 대상으로 한 참여 문인들의 사회연결망 분석 등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넘긴다.

<표 1> 『창작과 비평』 ‘순혈 작가’: 총 5명

순번	이름	계재	호명	출판	합 ²⁶⁾	창비 등단 여부	총 순위 ²⁷⁾
1	김애란	7	6	2	15	등단	15
2	공선옥	9	11	7	27	등단	21
3	김사과	3	6	3	12	등단	33
4	공지영	4	3	5	12	등단	64
5	김영현	2	1	2	5	등단	82

<표 2> 『문학동네』 ‘순혈 작가’: 총 23명

순번	이름	계재	호명	출판	합	문학동네 등단 여부	총 순위
1	박민규	12	7	3	22	등단	12
2	김훈	11	12	13	36	등단	17
3	김숨	4	7	2	13	등단	43
4	천명관	9	6	4	19	등단	43
5	김유진	6	6	3	15	등단	51
6	김종광	3	4	2	9	등단	60
7	박현옥	4	5	8	17	등단	66
8	안보윤	3	6	4	13	등단	88
9	기준영	4	2	2	8	등단	94
10	김현영	4	2	3	9	등단	115
11	이현수	2	3	3	8	등단	115
12	백영옥	3	2	3	8	등단	123
13	이영훈	4	2	1	7	등단	123
14	이해경	1	2	4	7	등단	132
15	전수찬	2	2	2	6	등단	132
16	박진규	1	2	3	6	등단	144
17	이만교	3	1	1	5	등단	144
18	윤애순	2	2	1	5	등단	167
19	전혜정	3	1	1	5	등단	167
20	김기홍	1	2	1	4	등단	190
21	김영래	2	1	1	4	등단	190
22	조남주	1	2	1	4	등단	190

26) ‘합’은 해당 계간지에 작가별 계재, 호명, 출판 건수를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27) ‘총 순위’는 특정 소설가가 3개 계간지에 계재, 호명, 출판 건수를 모두 합한 값의 순위를 말한다. 총 순위가 높다는 것은 3대 계간지 모두에서 계재, 호명, 출판이 잦았음을 의미한다. 총 순위 1위는 신경숙으로 87건에 달한다.

23	황현진	1	2	1	4	등단	190
----	-----	---	---	---	---	----	-----

<표 3> 『문학과 사회』 ‘순혈 작가’: 총 20명

순번	이름	계재	호명	출판	합	문학과 사회 등단 여부	총 순위
1	한강	9	6	6	21	등단	10
2	김중혁	10	8	3	21	등단	13
3	정이현	4	7	4	15	등단	20
4	백민석	5	5	3	13	등단	25
5	최윤	3	6	3	12	등단	33
6	박성원	8	3	5	16	등단	40
7	한유주	11	7	4	22	등단	40
8	채영주	1	3	3	7	등단	55
9	최제훈	4	7	2	13	등단	55
10	복거일	1	6	6	13	등단	69
11	박청호	3	5	4	12	등단	94
12	최시한	2	3	5	10	등단	105
13	서준환	4	3	3	10	등단	110
14	김연경	3	1	4	8	등단	115
15	최대환	4	1	2	7	등단	115
16	김엄지	3	1	1	5	등단	132
17	이명행	2	1	4	7	등단	132
18	박혜상	3	2	1	6	등단	144
19	류가미	1	2	1	4	등단	167
20	윤해서	3	1	1	5	등단	167

<표 4> 3대 계간지 중복 ‘주도 작가’²⁸⁾: 총 26명

순번	이름	계간지	계재	호명	출판	합	총 순위
1	신경숙	문동	10	18	15	43	1
		창비	9	11	3	23	
		문사	9	9	3	21	
2	성석제	문동	13	15	10	38	2
		창비	9	5	6	20	
		문사	8	4	2	14	
3	김영하	문동	13	17	21	51	3
		창비	3	6	1	10	
		문사	2	6	2	10	

28) 계간지 한 곳의 순혈 작가인 경우도 포함된다.

4	은희경	문동	12	13	12	37	4
		창비	8	8	4	20	
		문사	3	5	2	10	
5	김연수	문동	11	10	11	32	6
		창비	7	7	2	16	
		문사	3	8	1	12	
6	윤대녕	문동	10	13	12	35	7
		문사	9	5	1	15	
		창비	3	5	1	9	
7	배수아	문동	6	13	3	22	9
		문사	8	7	3	18	
		창비	3	4	1	8	
8	편혜영	문사	8	9	4	21	10
		문동	8	7	2	17	
		창비	2	4	2	8	
9	한강	문사	9	6	6	21	10
		문동	4	6	4	14	
		창비	3	5	3	11	
10	김경옥	문사	11	7	4	22	13
		문동	7	6	4	17	
		창비	2	2	1	5	
11	김중혁	문사	10	8	3	21	13
		문동	9	5	4	18	
		창비	2	2	1	5	
12	김애란	문동	5	10	2	17	15
		창비	7	6	2	15	
		문사	3	6	2	11	
13	조경란	문동	6	12	6	24	15
		문사	5	4	4	13	
		창비	3	2	1	6	
14	박완서	문동	3	8	10	21	17
		창비	4	7	2	13	
		문사	2	2	2	6	
15	천운영	문동	10	7	2	19	17
		문사	3	6	2	11	
		창비	4	3	3	10	
16	정이현	문사	4	7	4	15	20
		문동	4	6	5	15	
		창비	5	3	1	9	
17	하성란	문동	6	9	2	17	21
		창비	4	5	2	11	

		문사	3	5	1	9	
18	황정은	문동	5	8	5	18	21
		문사	4	5	1	10	
		창비	4	3	2	9	
19	이혜경	문동	4	6	2	12	27
		문사	6	4	1	11	
		창비	4	4	2	10	
20	강영숙	문동	6	7	3	16	33
		문사	2	4	1	7	
		창비	2	2	2	6	
21	윤성희	문동	6	6	2	14	33
		문사	3	4	1	8	
		창비	3	3	1	7	
22	권여선	문동	3	6	2	11	38
		창비	1	7	2	10	
		문사	2	4	1	7	
23	김숨	문동	4	7	2	13	43
		문사	1	4	4	9	
		창비	2	1	1	4	
24	백가흠	문동	4	8	2	14	43
		문사	2	3	3	8	
		창비	2	1	1	4	
25	김미월	문사	3	3	2	8	57
		문동	2	3	3	8	
		창비	1	2	1	4	
26	윤이형	문사	3	2	3	8	60
		문동	3	3	1	7	
		창비	2	1	1	4	

<표 5> 『창작과 비평』 - 『문학동네』 중복 ‘주도 작가’: 총 23명

순번	이름	계간지	계재	호명	출판	합	총 순위
1	박민규	문동	12	7	3	22	12
		창비	7	8	3	18	
2	공선옥	창비	9	11	7	27	21
		문동	3	5	2	10	
3	박범신	문동	7	9	7	23	25
		창비	5	3	2	10	
4	김사과	문동	4	7	2	13	33

		창비	3	6	3	12	
5	한창훈	문동	3	9	6	18	33
		창비	4	5	2	11	
6	김인숙	문동	7	5	5	17	38
		창비	3	3	3	9	
7	천명관	문동	9	6	4	19	43
		창비	2	1	1	4	
8	최인석	문동	3	6	3	12	48
		창비	3	3	3	9	
9	이승우	문동	2	4	2	8	53
		창비	1	1	1	3	
10	구효서	문동	3	5	3	11	60
		창비	1	2	1	4	
11	김종광	문동	3	4	2	9	60
		창비	3	2	1	6	
12	공지영	창비	4	3	5	12	64
		문동	1	3	1	5	
13	손홍규	창비	3	2	2	7	69
		문동	2	2	1	5	
14	이문구	문동	1	6	2	9	69
		창비	1	2	1	4	
15	정미경	문동	4	4	2	10	69
		창비	2	1	1	4	
16	윤영수	창비	6	3	2	11	77
		문동	1	2	1	4	
17	김영현	문동	2	2	3	7	82
		창비	2	1	2	5	
18	권지예	문동	2	3	2	7	94
		창비	3	1	1	5	
19	기준영	문동	4	2	2	8	94
		창비	1	1	1	3	
20	정도상	창비	4	1	3	8	94
		문동	1	1	2	4	
21	김승희	창비	1	3	2	6	105
		문동	1	1	2	4	
22	윤홍길	문동	1	2	2	5	110
		창비	1	1	1	3	
23	민경현	문동	1	3	1	5	116

		창비	2	1	1	4	
--	--	----	---	---	---	---	--

<표 6> 『문학동네』 - 『문학과 사회』 중복 ‘주도 작가’: 총 22명

순번	이름	계간지	계재	호명	출판	합	총 순위
1	백민석	문동	5	9	3	17	25
		문사	5	5	3	13	
2	정찬	문동	5	9	2	16	30
		문사	4	4	5	13	
3	정영문	문동	5	8	3	16	31
		문사	4	6	3	13	
4	최윤	문동	7	6	3	16	33
		문사	3	6	3	12	
5	박성원	문사	8	3	5	16	40
		문동	3	7	1	11	
6	임철우	문사	2	3	9	14	43
		문동	5	6	1	12	
7	이기호	문사	3	6	2	11	47
		문동	3	7	1	11	
8	박형서	문사	7	4	3	14	48
		문동	3	5	1	9	
9	이장욱	문동	3	5	3	11	48
		문사	2	3	3	8	
10	김유진	문동	6	6	3	15	51
		문사	1	4	1	6	
11	서하진	문동	3	7	2	12	51
		문사	4	3	4	11	
12	채영주	문동	5	5	3	13	55
		문사	1	3	3	7	
13	박상룡	문동	2	4	4	10	57
		문사	1	3	4	8	
14	손보미	문동	3	4	3	10	66
		문사	2	2	1	5	
15	정용준	문사	3	3	3	9	66
		문동	3	4	1	8	
16	이신조	문동	4	5	2	11	69
		문사	2	1	2	5	
17	이윤기	문동	4	4	1	9	69
		문사	5	1	1	7	
18	김성중	문동	2	3	2	7	77
		문사	3	2	2	7	
19	박솔피	문사	2	2	2	6	88

		문동	1	3	1	5	
20	염승숙	문동	2	4	2	8	88
		문사	2	2	1	5	
21	고종석	문동	3	1	4	8	94
		문사	2	1	1	4	
22	김원우	문사	1	2	1	4	132
		문동	1	1	1	3	

<표 7> 『창작과 비평』 - 『문학과 사회』 중복 ‘주도 작가’: 총 1명

순번	이름	계간지	계재	호명	출판	합	총 순위
1	조해진	창비	2	3	1	6	64
		문사	2	2	1	5	

<표 8> 위신 점수 상위 8명의 문예지별 활동 횟수 (등단, 계재, 호명)

순번	이름	창비	문동	문사
1	구병모	3	0	2
2	김남일	2	2	1
3	김하기	4	1	0
4	김형수	5	2	0
5	박인홍	0	0	2
6	오성용	4	0	0
7	이상권	4	0	0
8	임세화	3	1	0
9	최정화	3	1	0

<표 9> 창비 주관 문학상 수상자

연번	이름	주관	연도	수상작	작가	작가군	수상작 출판사
1	만해문학상	창비	1994	녹두장군	송기숙	주도	창비
2	만해문학상	창비	1996	외딴방	신경숙	주도	문학동네
3	만해문학상	창비	1999	너무도 쓸쓸한 당신	박완서	주도	창비
4	만해문학상	창비	2003	더러운 책상	박범신	주도	문학동네
5	만해문학상	창비	2004	황진이	홍석중	인정	대훈서적
6	만해문학상	창비	2005	푸른 혼	김원일	인정	이룸
7	만해문학상	창비	2007	빛의 제국	김영하	주도	문학동네
8	만해문학상	창비	2008	소설 쓰는 밤	윤영수	주도	랜덤하우스코리아
9	만해문학상	창비	2009	나는 죽지 않겠다, 명랑한 밥길	공선옥	순혈	창비
10	만해문학상	창비	2013	밤의 눈	조갑상	인정	산지니

11	만해문학상	창비	2014	소년이 온다	한강	주도	창비
12	신동엽문학상	창비	1995	시절들	공선옥	순혈	문예마당
13	신동엽문학상	창비	1999	어른도 길을 잃는다	박정요	주도	창비
14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0	매향	전성태	주도	실천문학
15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1	경찰서여 안녕	김종광	주도	문학동네
16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3	바늘	천운영	주도	창비
17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5	카스테라	박민규	주도	문학동네
18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8	황금 지붕	오수연	인정	실천문학
19	신동엽문학상	창비	2009	침이 고인다	김애란	순혈	문학과지성사
20	신동엽문학상	창비	2011	여덟 번째 방	김미월	주도	민음사
21	신동엽문학상	창비	2012	파씨의 입문	황정은	주도	창비
22	신동엽문학상	창비	2013	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주도	창비
23	신동엽문학상	창비	2014	팽이	최진영	주도	창비

<표 10> 문학과 지성 주관 문학상 수상자

연번	이름	주관	연도	수상작	작가	작가군	수상작 출판사
1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1994	화두	최인훈	주도	민음사
2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1996	화척	김주영	인정	문이당
3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1998	불의 제전	김원일	주도	문학과지성사
4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2000	오래된 정원	황석영	인정	창비
5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2002	용병대장	서정인	주도	문학과지성사
6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2004	오빠가 돌아왔다	김영하	주도	문학동네
7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2006	비밀과 거짓말	은희경	주도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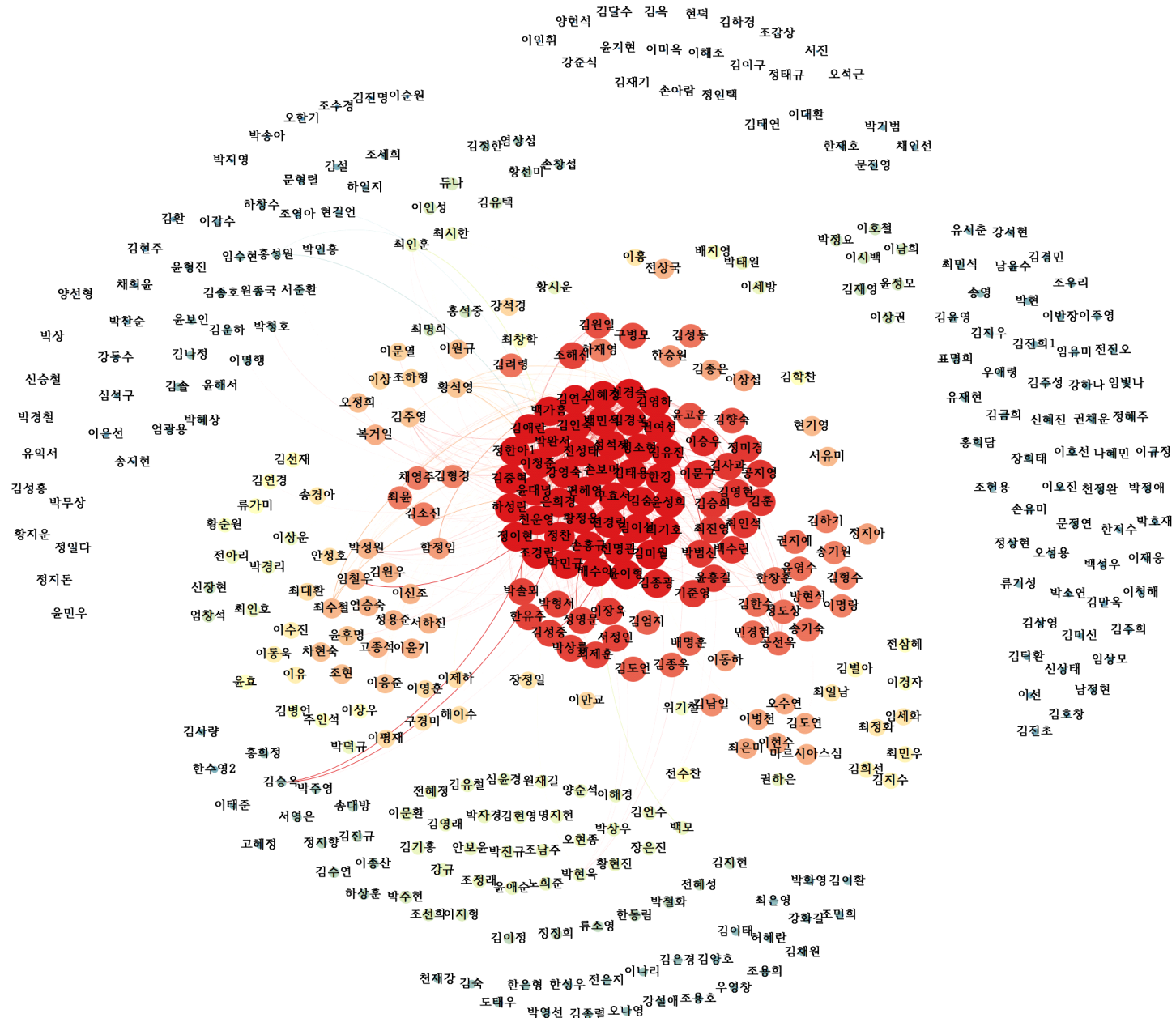
<표 11> 총 순위 20위 작가 이상·동인·현대문학상 수상자

순번	이름	총 순위	총합 ²⁹⁾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1	신경숙	1	87	1	1	1
2	성석제	2	72		1	1
3	김영하	3	71	1	1	1
4	은희경	4	67	1	1	
5	이청준	5	61	1(94년이전)	1(94년이전)	
6	김연수	6	60	1	1	
7	윤대녕	7	59	1		1
8	황석영	8	53			
9	배수아	9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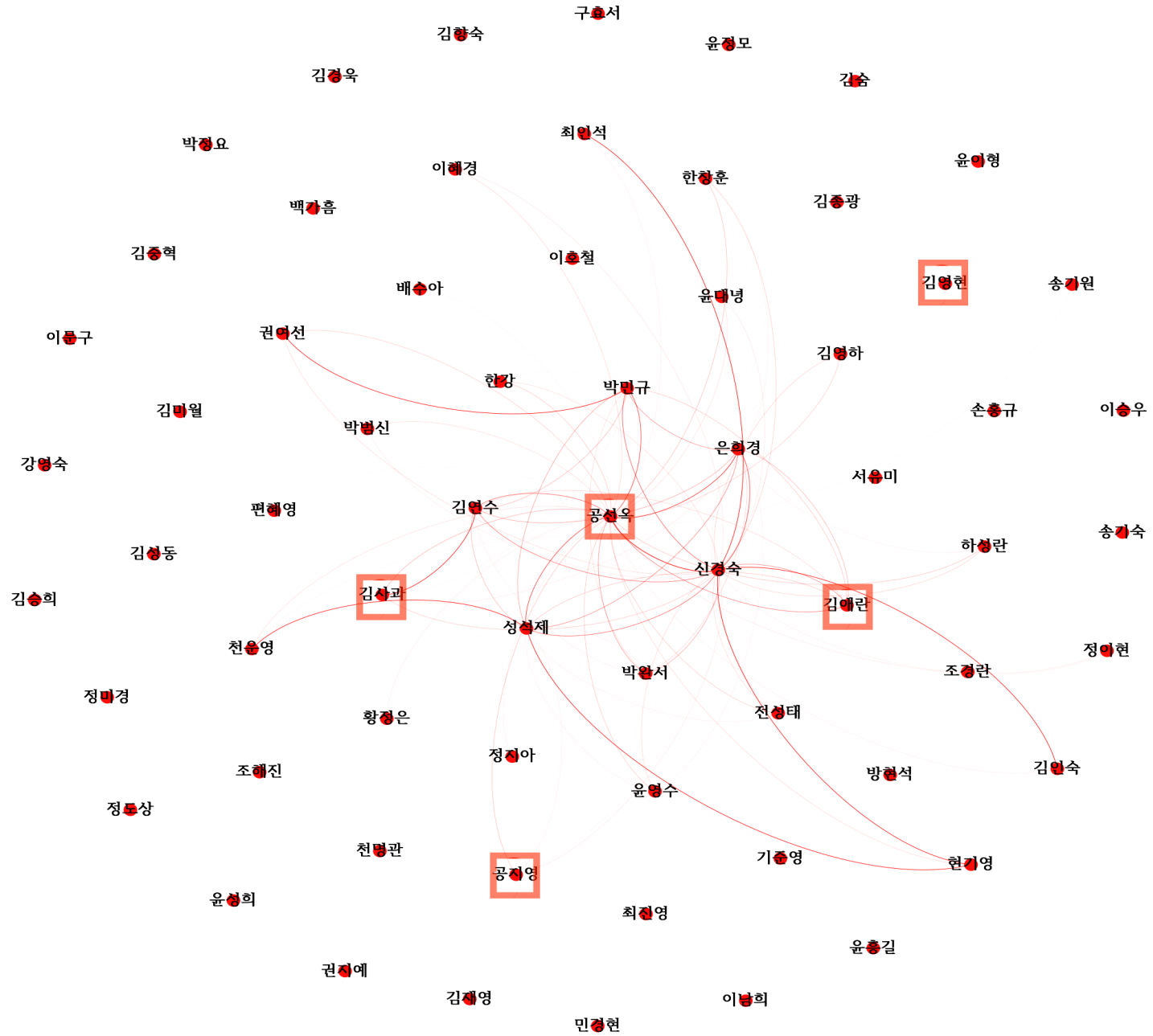
10	편혜영	10	46	1	1	
11	한강	10	46	1		
12	박민규	12	45	1		
13	김경옥	13	44		1	1
14	김중혁	13	44			
15	김애란	15	43	1		
16	조경란	15	43	1	1	
17	김훈	17	40	1	1	
18	박완서	17	40	1	1	1(94년이전)
19	천운영	17	40			
20	정이현	20	39			1

29) 3대 계간지에서 게재, 호명, 출판 건수를 합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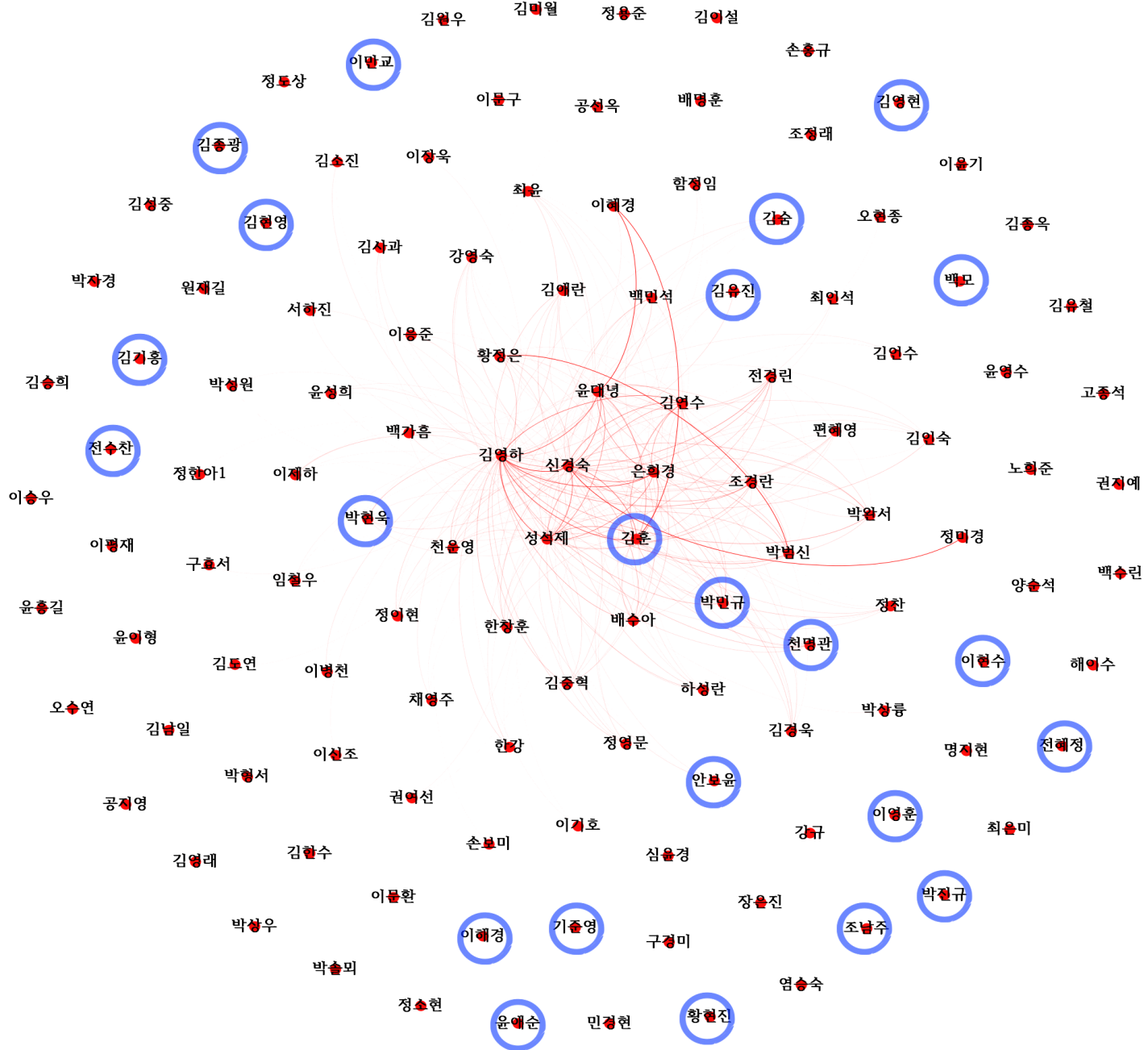
<그림 1> 3개 문예지 인정 작가 403명 (1994-2014): 3개 문예지에서 게재, 호명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소설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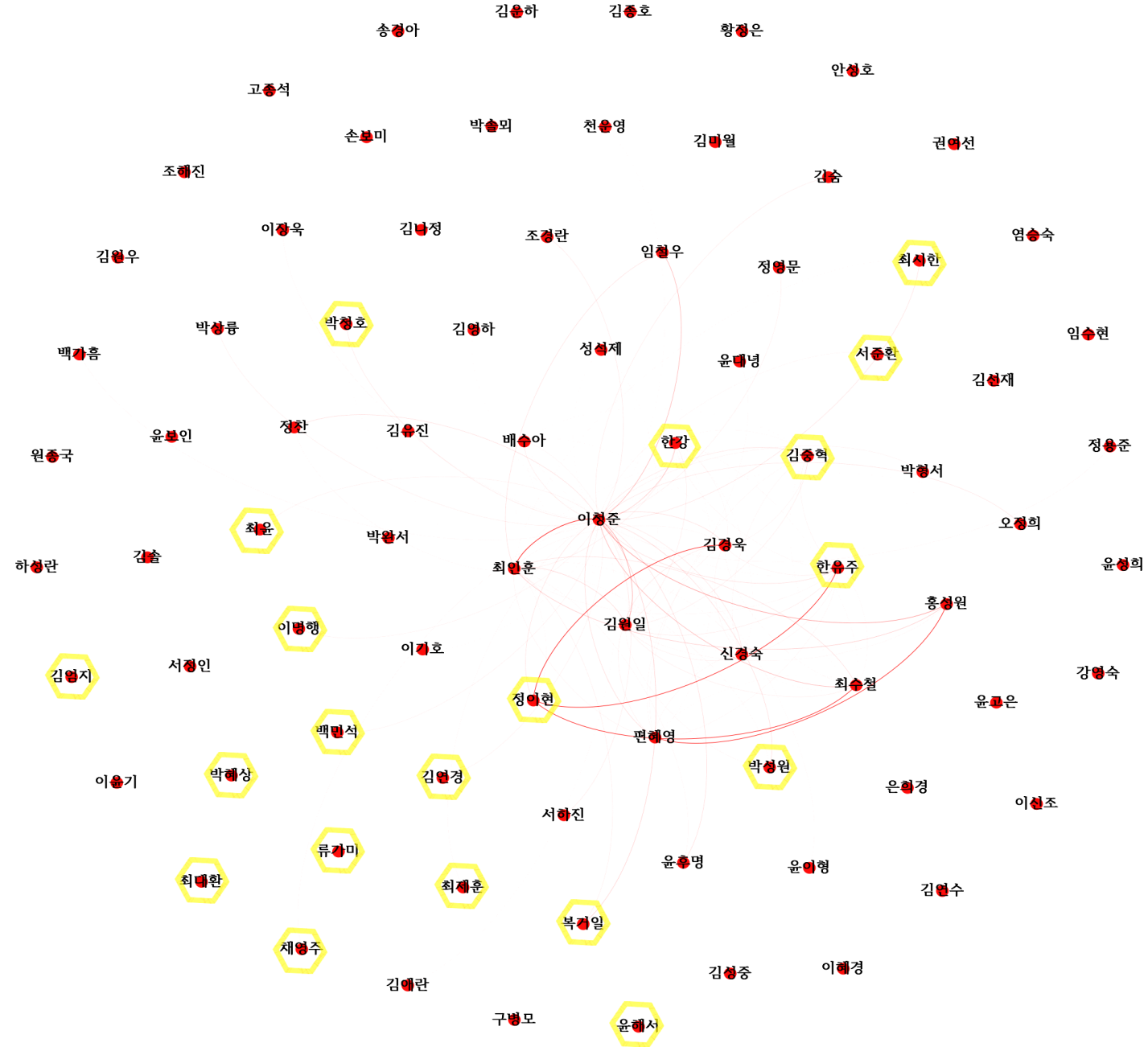
<그림 3> 『창작과 비평』 주도 작가 65명 (1994-2014): 『창작과 비평』에서 게재, 호명, 출간을 모두 경험한 소설가들 (순혈 작가 표기)



<그림 4> 『문학동네』 주도 작가 122명 (1994-2014): 『문학동네』에서 게재, 호명, 출간을 모두 경험한 소설가들 (순혈 작가 표기)



<그림 5> 『문학과 사회』 주도 작가 82명 (1994-2014): 『문학과 사회』에서 게재, 호명, 출간을 모두 경험한 소설가들 (순혈 작가 표기)



<그림 6> 소설가들의 사회인구학적 지형 (1994-2014): 인정 작가 403명의 성별, 나이, 등단 년도, 대학, 대학전공, 대학원, 대학원 전공의 유사성에 기반한 연결망

